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칩스앤미디어 (094360)

소프트웨어/IT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김창현 연구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칩스앤미디어(094360)

다양한 전방산업의 비디오 기술 수요 확산에 따른 성장 지속 중

기업정보(2020/10/15 기준)

대표자	김상현
설립일자	2003년 03월 06일
상장일자	2015년 08월 0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비디오 IP

시세정보(2020/10/21 기준)

현재가	11,6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123억원
발행주식수	9,640,315주
52주 최고가	15,200원
52주 최저가	4,848원
외국인지분율	1.5%
주요주주	
(주)텔레칩스 외 2인	37.7%

■ 비디오 코덱 IP 이외 ISP/CP, CV IP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 구축

칩스앤미디어(이하 동사)는 반도체 설계자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IP는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Block)으로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동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의 영상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IP 기술 분야이다. 최근 주력 제품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연관된 IP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동사 역시 주력 제품인 비디오 코덱 IP뿐만 아니라 ISP(Image Signal Processing), CP(Computational Photography) IP 신제품을 출시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V(Computer Vision) IP의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제품 적용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다.

■ 반도체 IP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동사의 사업 활성화 기대

최근 다양한 전자제품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칩 수요와 짧아진 제품 출시 주기로 인해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고유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IP 형태로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준화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반도체 IP를 도입하여 빠른 시일 내 칩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전환됨에 따라 반도체 IP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IP 시장 역시 반도체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어 비디오 IP 전문기업인 동사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 높은 연구개발 인력 비중과 투자비율을 바탕으로 기술 역량 확보

동사는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정규직원 중 약 81%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최근 3년간 매년 매출액 중 35% 이상을 연구개발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를 바탕으로 동사는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슈퍼 레졸루션(Super Resolution, 초고해상도)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상용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90.6	-33.8	-15.1	-16.7	-23.2	-25.7	-8.3	-7.7	9.4	-242	2,753	-	2.3
2018	141.5	56.2	20.2	14.3	26.4	18.7	9.6	8.7	11.6	274	2,961	17.9	1.7
2019	161.5	14.1	35.9	22.3	45.2	28.0	14.9	13.4	11.7	469	3,329	15.6	2.2

기업경쟁력

다양한 분야에 동사의 비디오 IP 적용

- 자동차, 영상가전, 산업용 기계,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동사의 비디오 IP 적용 중
- ISP, CP, CV IP 등의 개발을 통해 비디오 코덱 IP와의 시너지 효과, 적용 분야의 다양화 기대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 역량 확보

- 75명의 정규직원 중 61명이 연구개발 인력 (81% 비중)
- 최근 3년간 매년 매출액의 3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
-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술개발 실적 보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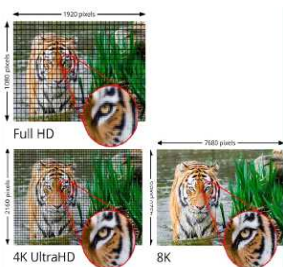
비디오 IP 기술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해 저전력을 유지하며 고해상도 영상 고속처리 가능
- CODA, WAVE 등 다양한 비디오 코덱 IP 라인 보유

제품군

주요제품

비디오 코덱 IP



CV IP (객체 검출)



ISP/CP IP



CV IP (슈퍼 레졸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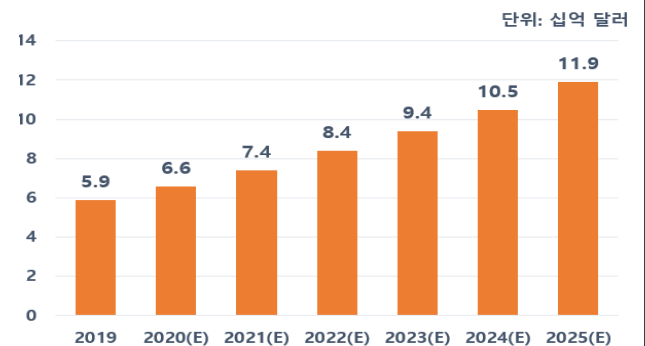
매출 비중

■ 2019년 유형별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품목	매출 유형	매출액	비중
비디오 IP	라이선스	8,782	54.4
	로열티	6,838	42.3
	용역	528	3.3
총합계		16,148	100.0

시장경쟁력

세계 반도체 IP 시장규모



소수 업체의 과점 구조인 반도체 IP 산업

■ 2019년 세계 반도체 IP 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기업명	매출액	비중
ARM	1,608.0	40.8
Verisilicon	69.8	1.8
칩스앤미디어	13.8	0.4
총합계	3,938.0	100.0

최근 변동사항

미국 및 중화권 업체와 계약 체결

- 글로벌 TOP10 반도체 기업과 설계 계약 체결
향후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용 로봇에 적용 예정
- 중화권 대형 세트 업체에 슈퍼 레졸루션 IP 판매
8K TV용 칩, 셋톱박스 칩 등에 적용 예정

(주)텔레칩스의 정부 AI 반도체 사업 총괄로 선정

-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에 활용될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동사의 지배회사 (주)텔레칩스가 참여
-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비디오 IP 개발을 진행 중인 동사와 시너지 효과 기대

I.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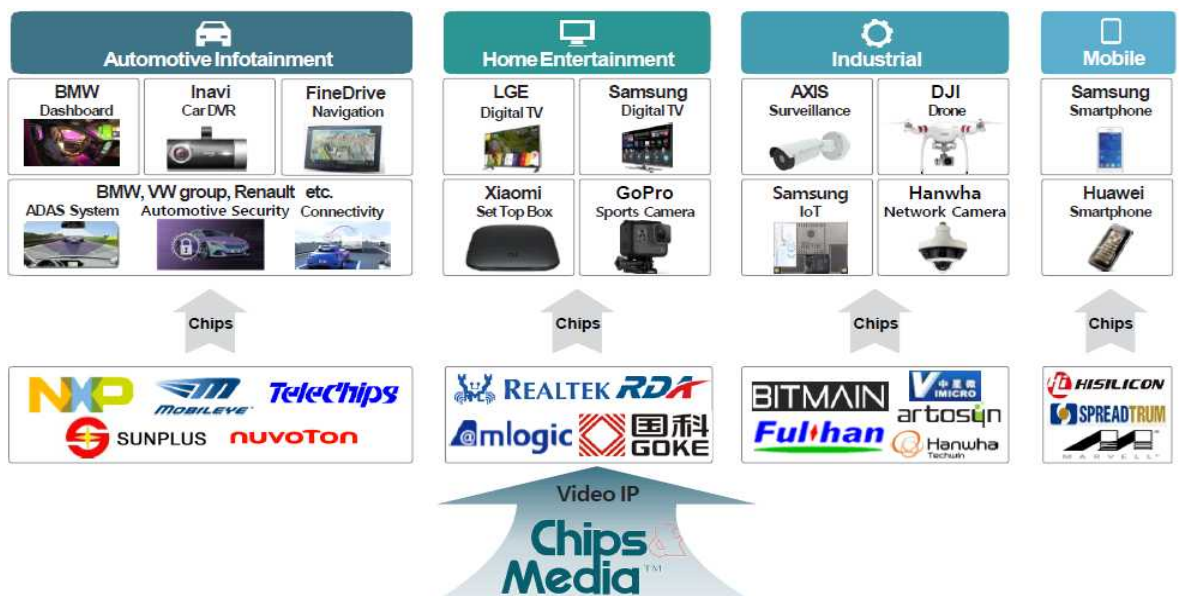
비디오 코덱 IP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IP 확보 중

동사는 비디오 IP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자동차, 영상가전, 모바일기기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ISP, CP, CV IP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2003년 3월 설립된 반도체 설계자산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반도체 IP 중 비디오 IP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비디오 IP는 자동차의 대시보드, 내비게이션, TV, 셋톱박스 등 영상가전, 산업용 기계,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동사는 현재 비디오 코덱 IP 이외에도 ISP, CP, CV IP의 확보 및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동사는 2015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반기보고서(2020.06) 기준 75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비디오 IP 적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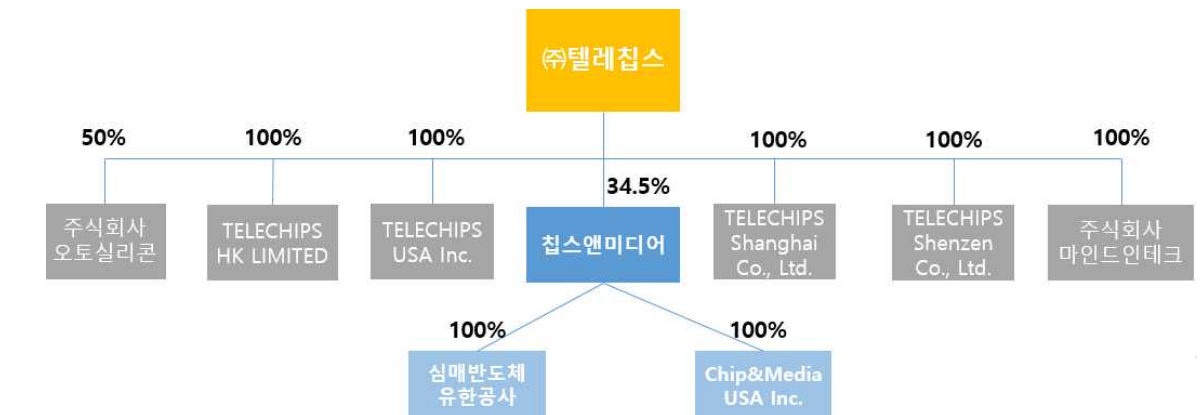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 자료

■ 계열회사 및 주요주주

동사의 계열회사는 총 9개로, 1개의 상장사와 8개의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텔레칩스(최대주주: 이장규, 22.7%)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AVN(Audio, Video, Navigation)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이다. 동사의 종속회사로는 심매반도체유한공사(중국), Chips&Media USA Inc.(미국)가 있으며, 두 기업 모두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종속회사를 바탕으로 현지 판매거점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영업을 통해 동사의 비디오 IP를 현지 기업들에 판매하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계열회사 지배구조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가공

■ 주요제품 및 매출 비중

동사의 주 매출은 비디오 IP 라이선스 및 로열티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라이선스는 동사가 설계한 비디오 IP를 반도체 설계 업체에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하고, 로열티는 동사의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판매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사업보고서(2019.12) 기준 비디오 IP의 라이선스와 로열티를 통한 매출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심매반도체유한공사, Chips&Media USA, Inc.를 통한 해외 영업을 바탕으로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기술영업을 바탕으로 에이엠디(AMD, 미국), 마벨(Marvell, 미국), 리얼텍(Realtek, 중국), 엔엑스피 반도체(NXP, 네덜란드), 삼성 등 국내외 100개 이상의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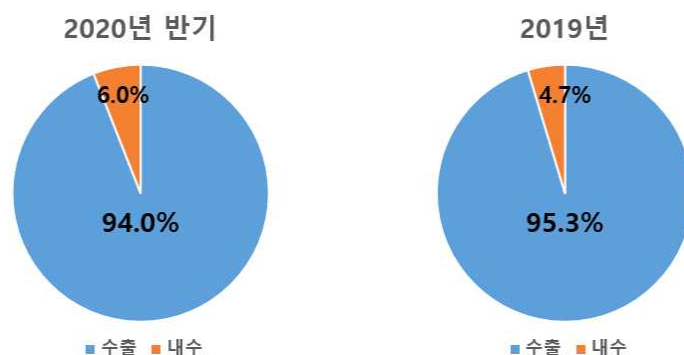
[표 1] 동사의 주요제품 및 매출 비중

(단위: 천 원, %)

사업 부문	매출 유형	2020년 반기		2019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비디오 IP	라이선스	1,777,632	27.7	8,781,908	54.4
	로열티	4,410,513	68.7	6,838,125	42.3
	용역	233,296	3.6	528,177	3.3
총계		6,421,441	100.0	16,148,210	100.0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가공

[그림 3] 동사의 수출 및 내수 비중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가공

II. 시장동향

반도체 IP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른 사업 활성화 기대

동사가 영위 중인 비디오 IP 사업은 반도체 IP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반도체와 반도체 IP 시장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크게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진행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 IP 개발 후 라이선스 판매를 진행하는 칩리스(Chipless), 반도체를 설계해 외주 생산하는 팹리스(Fabless), 설계 전문업체로부터 제품을 수탁 생산하는 파운드리(Foundry) 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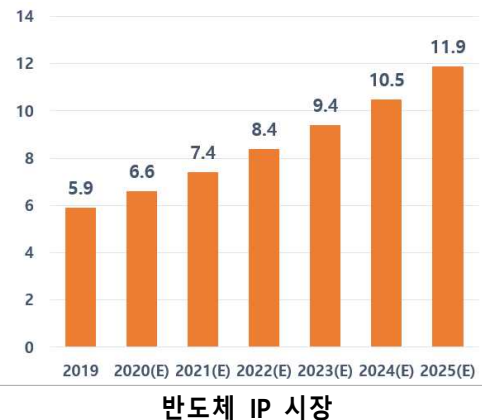
반도체 IP는 ‘반도체 디바이스 내에 구현되기 위해 미리 정의된 기능 블록’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저작권, 신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 중 반도체 IP는 신 지식재산권의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해당한다. 반도체 IP는 설계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 복잡한 반도체 회로의 설계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반도체 IP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는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가 2019년 4,090억 달러에서 약 3.3% 성장한 4,260억 달러, 2021년에는 4,5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Pnest는 세계 반도체 IP 시장이 2019년 59억 달러에서 연평균 12.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 약 119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인 반도체 IP 시장이 반도체 전체 시장 성장률(3.3%) 대비 높은 성장률(12.3%)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사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세계 반도체 및 반도체 IP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 WSTS, IPnest, NICE디앤비 재가공

■ 소수 업체의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IP 시장

반도체 IP 시장은 2019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78.1%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업체의 과점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RM은 CPU IP 전문 설계 업체로, 전 세계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95%가량이 ARM의 CPU IP를 활용할 만큼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동사와 유사하게 비디오 IP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업체로 중국 Verisilicon, 프랑스의 Allegro가 있다. Verisilicon은 고객으로부터 칩 제작을 의뢰받아 일괄 공급하는 턴키(Turnkey) 서비스가 주력인 업체로, 구글의 기술에 자체 기술을 결합한 비디오 코덱 IP 제품을 라이선스하고 있다. Allegro는 비디오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스트림을 제작해 IP 업체, 반도체 칩 판매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비디오 코덱 IP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회사이다. 한편, Allegro는 초기 중저가 시장을 목표로 한 비디오 코덱 IP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했으나, 2019년 Amphion사를 인수한 후 UHD급 IP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유일의 반도체 IP 업체이나, IPnest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액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0.4%로 시장 선두인 ARM 대비 10% 미만 수준이다.

[표 2] 세계 반도체 IP 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기업명	매출액		2019년도 점유율
	2018년	2019년	
ARM	1,610.0	1,608.0	40.8
Synopsys	629.8	716.9	18.2
Cadence	188.8	232.0	5.9
SST	104.8	115.0	2.9
Imagination	119.7	101.1	2.6
CEVA	77.9	87.2	2.2
Verisilicon	66.3	69.8	1.8
칩스앤미디어	12.7	13.8	0.4
기타	932.7	994.2	25.2
총계	3,742.7	3,938.0	100.0

*출처: IPnest(2020), NICE디앤비 재가공

Ⅲ. 기술분석

하드웨어 IP 기반 고해상도 영상처리 기술 보유

높은 연구개발 인력 비중과 연구개발 비용을 바탕으로 비디오 코덱 IP를 개발해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했으며, 객체 검출, 슈퍼 레졸루션 등의 신규 IP 라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 적용 분야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비디오 IP

반도체 IP는 프로세서와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메모리, 인터페이스 등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십 가지 미세한 블록을 말한다. 동사는 이러한 블록 중에서 스마트폰, TV 등 각종 영상기기에 들어가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디오 IP 기술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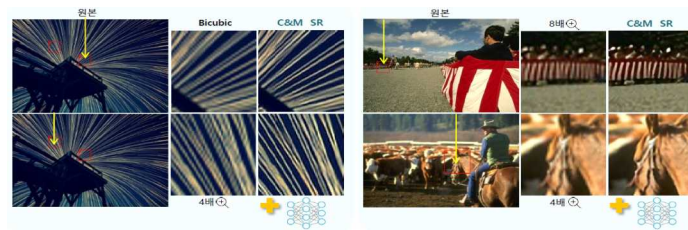
동사가 설계하는 비디오 IP는 하드웨어 기반에 소프트웨어를 일부 도입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비디오를 처리하는 연산은 하드웨어 코덱이, CPU와의 연결과 통제는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Full HD, Ultra HD급 고해상도의 영상을 고속처리하면서 저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CODA 계열, WAVE 계열 등 다양한 비디오 코덱 IP 제품군을 보유하고, MPEG-4, DivX, HEVC, H.264 등 주요 비디오 표준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사의 비디오 IP는 대시보드, 내비게이션, ADAS(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자동차 분야, TV, 셋톱박스 등 영상가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동사는 제품의 적용 분야 확장을 위해 ISP, CP, CV IP의 확보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ISP는 카메라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발생하는 왜곡, 결함 등을 보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CP는 ISP로부터 출력된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CV는 딥러닝 기반의 프로세싱 기술로, 보행자, 차량, 자전거 등 대상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객체 검출, 슈퍼 레졸루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사업영역 확장

동사는 CV IP인 객체 검출,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객체 검출 기술은 동사만의 딥러닝 기술로 학습된 데이터를 하드웨어를 통해 저전력으로 처리하면서 보행자, 차량, 오토바이 등 최대 20개의 사물을 검출해낼 수 있다. 동사의 객체 검출 IP는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선박 크레인 등의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슈퍼 레졸루션은 저화질 영상을 최대 8K 60fps까지 향상시키는 기술로, 동사만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주변 색깔과 유사한 색깔을 맞춰가며 기존의 단순 보간법을 통한 해상도 개선 작업보다 더욱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 5] 동사의 슈퍼 레졸루션 기술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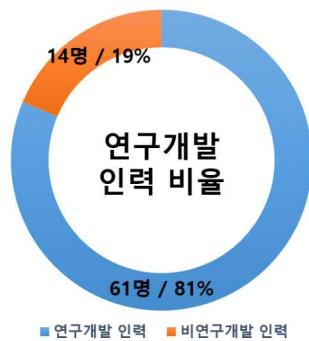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 자료

■ 높은 연구인력 비중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사업역량 확보

동사는 2003년 5월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75명의 정규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이 61명으로 약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 중 62%는 석·박사급 인력이다. 동사는 최근 3년간 매년 매출액의 3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어 동 업종(J582) 평균(4%) 대비 높은 비율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연구소 및 연구개발 조직을 중심으로 다수의 비디오 코덱 IP, 객체 검출 IP, 슈퍼 레졸루션 IP 등의 기술을 개발, 상용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반기보고서(2020.06) 기준 국내 등록 특허 29건, 상표권 3건과 해외 등록 특허 15건, 상표권 5건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6] 동사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 투자비율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 투자비율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동사 IR 자료, NICE디앤비 재가공

[그림 7] SWOT 분석

Strength

- 비디오 코덱 IP 이외 ISP, CP, CV IP 확보 및 개발을 통해 제품 적용 분야 확장
- 하드웨어 IP 기반 저전력, 고성능 설계 기술 보유

- ㈜텔레칩스의 AI 반도체 사업 총괄 선정에 따라 향후 동사의 자율주행 자동차용 IP 판매 수혜 기대

Opportunity

Weakness

- 지속적인 레퍼런스 확보로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시장 지배력 강화 필요

- 소수업체의 과점구조를 보이는 반도체 IP 시장
- 반도체 칩 회사의 자체개발 대비 낮은 비디오 IP 도입 비율

Threat

IV. 재무분석

사업 분야 확장을 통한 거래처 다변화에 힘입어 외형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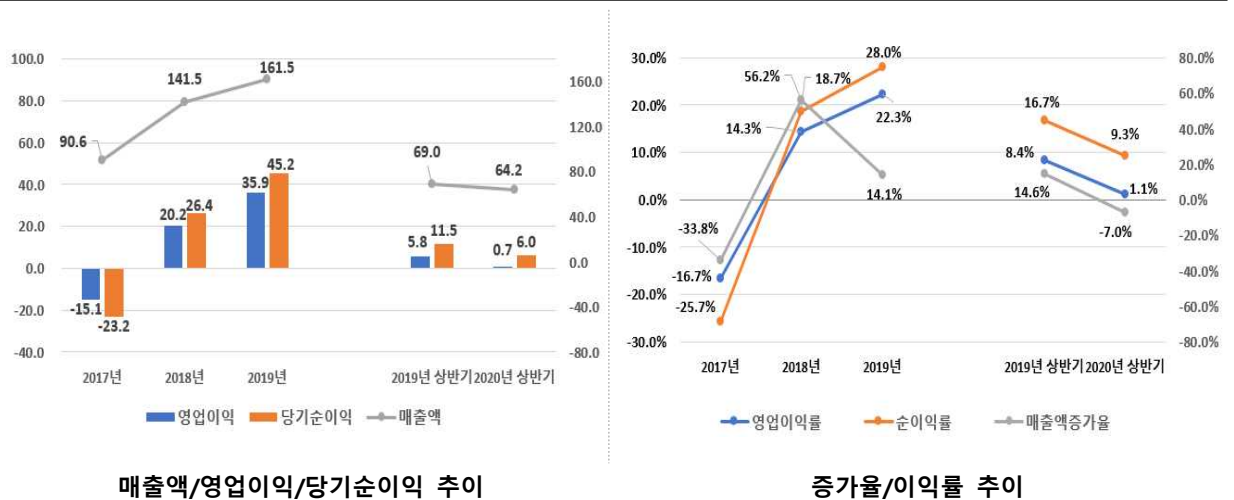
신제품 개발을 통한 거래처 다변화로 매출 외형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출 실적 개선에 힘입어 2019년 20%를 상회하는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 ISP, CP, CV IP 등을 통한 매출 외형 증대

동사의 주력 사업영역은 비디오 IP 기술 분야이고, 동사의 비디오 코덱 IP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 설계도의 일부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동사는 주력 제품인 비디오 코덱 IP 외에 유관 IP들을 확보하여 수요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과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ADAS와 드론(헬리캠), 웨어러블카메라(액션캠), 영상보안기기 등 카메라 센서가 적용되는 전자제품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동사는 ISP IP와 CP IP를 개발하여, 주력인 비디오 코덱 IP와의 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분야 확장을 통한 거래처 다변화로 동사의 연결 재무기준 매출액은 2017년 90.6억 원에서 2018년 141.5억 원으로, 2019년 161.5억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2019년 사업 다각화, 외형 성장에 기반한 양호한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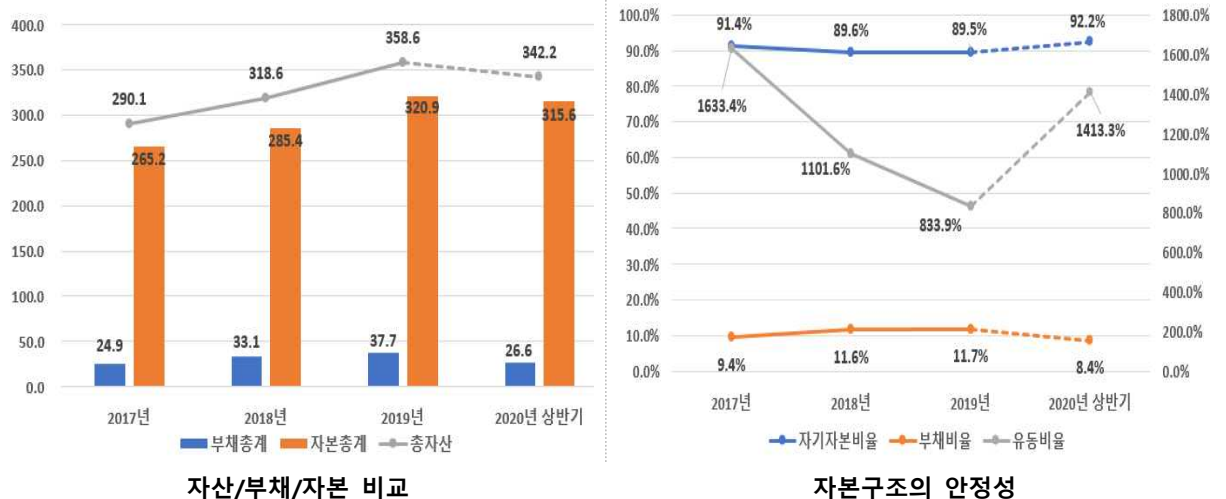
연결 재무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56.2%, 2019년 14.1%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며 최근 2개년 현격한 외형 성장을 보였다. 동사의 매출은 크게 라이선스와 로열티 매출 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90% 이상의 매출이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사는 각 국가 거점에 법인 또는 사무소 설치 후 기술영업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회사의 전문 영업 인력과 FAE(Field Application Engineer) 인원들이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의 Pre-sales 활동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비디오 IP 품목의 라이선스와 로열티 매출은 각각 88억 원과 68억 원이며, 매출 비중이 2019년 기준 54.4%와 42.3%에서 2020년 상반기 27.7%와 68.7%를 나타내며, 로열티 매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2020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 등지에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라이선스 부문의 해외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2분기에 중국의 인공지능(AI)업체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재개했고, 로열티 매출도 증가 추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시 향후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동사는 매출 실적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2018년 20.2억 원[영업이익률 14.3%]에서 2019년 35.9억 원[영업이익률 22.3%]으로, 당기순이익이 2018년 26.4억 원[순이익률 18.7%]에서 2019년 45.2억 원[순이익률 28.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무성

■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실적 주춤했으나, 2분기 회복세

동사는 미국과 중국 매출 비중[2019년 기준 미국 49.7%, 중국 30.3%]이 높은 가운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이 미국까지 이어지며 라이선스 계약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1분기 매출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20% 가량 하락하며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2분기에는 일정 수준 실적을 회복하며 상반기 매출액 64.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는 2019년 상반기 69억 원 대비 7%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동사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고객사들이 정상적으로 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고객사들도 다소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고려 시 향후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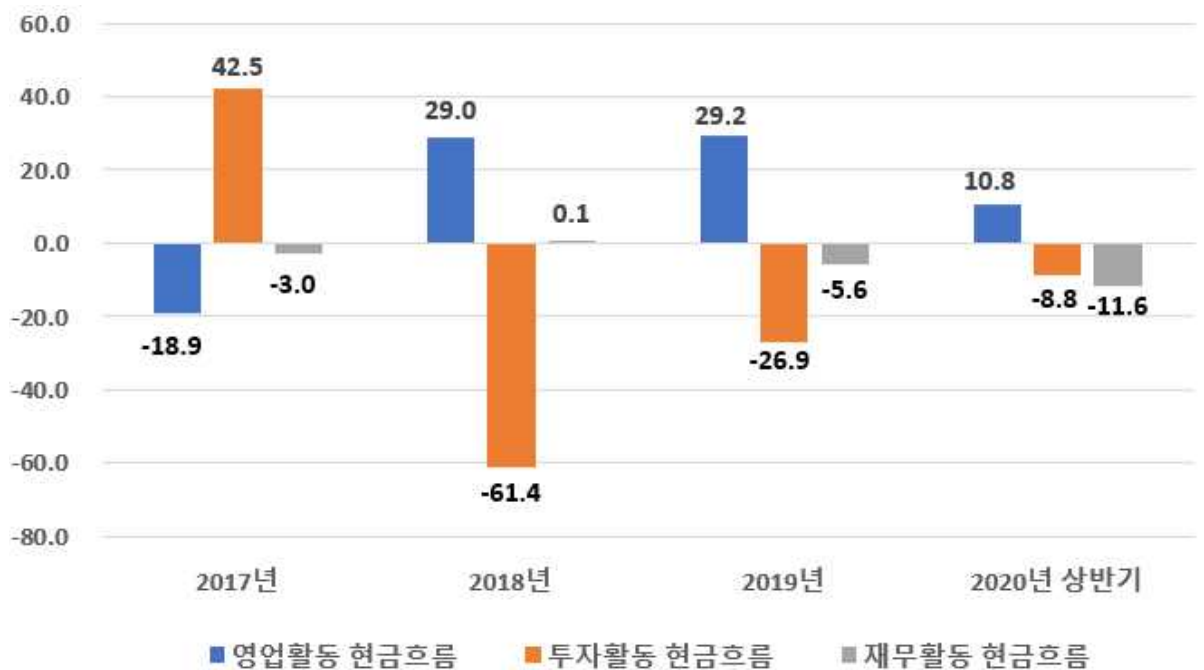


■ 2019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양호

동사는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전년 수준을 지속했으며, 유·무형 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한 투자활동의 자금 소요, 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무활동상의 자금 소요를 기초현금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창출액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기초현금보유액은 3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10]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신규 IP 관련 매출 발생 등 사업영역의 확장 기대

안정적인 비디오 코덱 IP 매출에 슈퍼 레졸루션 IP 판매 등의 실적이 추가되며 판매하는 IP 라인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동사의 IP가 적용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입 증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 2020년 8월 글로벌 TOP10 반도체 회사와 계약 성사

동사는 2020년 8월 글로벌 TOP10 반도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NDA (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 유지협약)로 정확한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계약 체결 고객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규모의 기업으로, 설계부터 모든 칩 생산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계약을 통해 동사의 비디오 IP는 자동차 반도체와 산업용 로봇 반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수개월의 Pre-sales 과정을 거쳐 성사되었으며, 일회성 라이선스가 아닌 대형 고객의 장기적 비디오 IP 파트너로서 동사의 성장세를 이어갈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슈퍼 레졸루션 IP, 중화권 대형 세트 업체와 계약 체결

동사는 2020년 8월 중화권 대형 세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슈퍼 레졸루션 IP의 첫 판매실적을 달성했다. 금번 계약을 통해 향후 동사의 슈퍼 레졸루션 IP가 탑재된 8K TV용 칩과 셋톱박스 칩이 생산될 예정이다. IHS Markit은 세계 8K TV 시장이 2019년 63만 대, 2020년 135만 대, 2022년 223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라이선스를 통한 매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로열티 수입이 동사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텔레칩스의 정부 AI 반도체 개발사업 총괄 선정에 따른 동사의 매출 성장 기대

2020년 5월 동사의 지배회사 (주)텔레칩스가 정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에 활용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사업’의 모바일 부분 컨소시엄의 총괄로 선정되었다. (주)텔레칩스는 과제 중 복합감각 기반 상황예측형 모바일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칩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전력효율을 높인 AI 반도체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텔레칩스는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ADAS 등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ADAS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한 비디오 IP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주)텔레칩스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신한금융투자	Not Rated	—	2020.04.23
	■ 언택트(비대면)시대를 맞아 동영상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우호적인 환경하에 꾸준한 성장 예상		
유진투자증권	Not Rated	—	2020.01.31
	■ 올해 실적 기록 경신 기대 ■ 세계 동종업계 평균 PER 38.6배와 비교하면 저평가 상태		